

# 노인성 眼질환의 관리대책 ①

# 개요

- ◇... 눈도 몸의 일부이니 만큼 노화로 오는 질환이 많고 그...◇
- ◇...대표적인 것이 노인성 백내장이라 하겠다. ...◇
- ◇... 20C 초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세를 겨우 넘었을...◇
- ◇...정도였지만 지금은 70세에 가깝다. 사회의 인구 구성이...◇
- ◇...바뀌어지고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백내장같은 노인성 변...◇
- ◇...화로 오는 질환이 날로 증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

는 경우도 있고 또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백내장이 발견되면 주기적인 전문의의 진찰과 관찰이 필요하다.

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데 수술받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백내장 수술이란 일단 흐려진 수정체는 다시 투명하게 할 수 없으니까 눈 밖으로 제거해 버리는 수술이다. 따라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

체를 빼낸 눈으로는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수술후 똑똑히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에 해당하는 렌즈를 끼워 주어야 한다. 또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종전에 10mm 이상 절개하여 수술하였던 것을 3mm만 절개하고 그 사이에 1초에 40,000번 진동하는 초음파 백내장 유화흡인기를 사용하여 수정체를 액화시켜서 빨아낸다. 따라서 수술후 곧 기동해도 되고 회복이 훨씬 빠르며 또 수술후 생기는 난

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서 처음에는 놀라서 안과를 찾는다.

겉에 떠다니는 물체의 모양은 각양 각색으로 점일 때도 있고 거미, 거미줄, 실오라기, 벌레, 모기, 검은 줄, 솜, 반지 모양 등등 갖은 형태로 보인다고 호소한다. 이들 물체는 눈 속에서 물에 떠있는 것처럼, 눈을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지만 눈을 가만히 두면 물에 가라 앉는 것처럼 떠다닌다.

시야의 중앙에 위치하고 비교적 움직임이 적은 경우는 보는데 방해는 하지만, 시야의 주변에 있는 경우는 혼

## 비문증

# 시야아동파라 검은물체 떠다니는 증세 보여



이상욱 (가톨릭의대 교수)

### 노인성 백내장

백내장은 우리나라 실명 원인중 으뜸을 차지하며 시력을 잃고 병원을 찾는 환자의 약 1/3을 차지한다.

백내장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우리 눈속의 원래 투명하던 수정체가 노화 현상으로 뿌옇게 혼탁되어 실명하게 되는 병이다. 백내장은 선천적으로 올 수 있으나 대부분이 후천적으로 오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노인성이다.

통계에 의하면 백내장은 연령과 함께 증가해서 80세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백내장이 생기게 된다.

백내장의 증상은 첫째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통증은 없고 수정체가 서서히 흐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개가 낀 것처럼 눈앞이 흐려지다가 차차 백내장으로 진행된다.

초기에는 주머니가 올 수 있는데 이것은 환한 곳에서는

오히려 잘 안보이고 방안이나 좀 어두운 곳에서는 낮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것은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적어져서 동공 뒤의 수정체의 혼탁이 그만큼 더 눈을 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 혼탁 부위에 따라서는 물체가 여러개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시기가 지나 진행이 되면 완전히 혼탁해져서 검은 동공이 우유빛으로 보이고 시력도 거의 떨어져 실명하게 된다. 대부분 서서히 진행된다. 한 눈에만 오는 경우

도 있지만 보통 두 눈에 다 온다.

근년에 백내장 수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낭외적출술을 하기 위해서는 0.3 정도의 시력, 즉 미숙기에 수술하는 것이 적당하다. 특히 한쪽 눈의 시력이 좋은 경우 소홀히 생각하여 차일피일 미루는 수가 있는데 시기가 늦지 않게 전문의와 의논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백내장이 초기에 발견되면 내 눈이 장차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수술을 받게 될 것인지, 또는 수술을 안하고 치료될 수는 없는지 하는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백내장의 진행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아무런 진행없이 정지성으로 있

### 백내장 치료

백내장의 치료는 크게 구분해서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다.

- 1) 약물요법
- 2) 수술요법

다른 병은 조기 발견에 조기 수술이 원칙인데 백내장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조건이 많다. 가령 어린이의 선천성 백내장은 될수록 빨리 수술해서 눈의

## 백내장-최근 초음파이용 3mm절개로 수술가능

## 낭외적출술 시기 시력0.3일때 적당

발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나 노인성 같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직업, 연령, 두 눈에 다 왔는지 한 눈에만 왔는지의 여부등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현대는 수술 방법의 발달, 기술과 기구 및 재료 등의 개선으로 조기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낭외적출술이나 인공수정체삽입,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시력이 0.3정도가 되면 수술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신문보는데 좀 불편하다거나 시력이 좀 흐려졌다

시가 적어서 보다 좋은 시력을 얻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질환이 없으면 대부분의 예에서 좋은 시력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

### 비문증

일명 초자체 부유물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아주 흔한 노인성 질환의 하나이다. 아주 작은 초자체 혼탁이 초자체 안에서 떠다녀서 마치 모기가 날라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검은 점이나 실오라기 같이 망막에

히 못 느끼는 수가 많다. 보통 이들 검은 물체들은 배경이 흰 곳을 볼때 눈에 띄기 쉽다.

그 밖에는 망막열공이나 출혈성 질환, 당뇨병성 망막증 등에 의해서 초자체내에 작은 출혈을 일으켜 적혈구가 비쳐서 생기는 수도 있다. 고혈압, 백혈병, 망막정맥 폐색증, Eale's 병때의 초자체 출혈로도 올 수 있다. 아주 오래된 망막박리 때도 색소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다.

흔히들 비문증을 호소하는

(7면으로 계속)

# 맨파오

精力·氣力 증강을 위한 秘方

- 山茱萸 茯苓 麥門冬 牛膝 甘草
- 炮附子 枸杞子 玄參 黃耆 白朮
- 鎖陽 川續斷 熟地黃 覆盆子
- 淫羊藿 胡蘆巴 巴戟天 肉蓯蓉
- 桂皮 仙茅 菟絲子 補骨脂
- 人參 牧丹皮 海馬 杜仲 阿膠
- 鹿茸 廣狗腎 黑驢腎 當歸
- 鹿茸 廣狗腎 黑驢腎 當歸

中國皇室秘方 生藥 31種  
 蔓파오란 이미 중국에서 男寶라 불리는 이름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자양강장제로 신허(腎虛)를 보(補)하고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배합되어 있으며 옛부터 중국황실에만 전하여 내려오는 비방(秘方)과 중국의 학문 및 동양의학 사상에 근거를 둔 처방으로 중년기 이후 쇠약해지기 쉬운 기력 및 활력 증강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 '맨파오'란 무엇인가?

'맨파오'는 강장(強壯) 및 강정(強精)을 중심으로한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복합처방 되어있는 광범위한 효능·효과의 자양강장제입니다.

- 수입·판매원: 한일약품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56-408)
- 제조원: 日本·田辺製藥株式会社 (日本·大阪)
- 제약원: 中國天津市力生製藥廠 (中國天津市南開區黃河道 491 号)

· 표준소매가: 40캡슐/30,000원, 120캡슐/80,000원  
 · 문의처: (02)464-0861, 학술부